

中日 학자 비평을 통해 본 臺山の 학문적 입장 一考察

이 규 필*

<目次>

- | | |
|------------------------|--------------------|
| I. 서론 | IV. 朱子學에 대한 臺山の 입장 |
| II. 訓詁學의 流弊에 대한 우려와 비판 | V. 결론 |
| III. 陽明學 및 佛敎에 대한 비판 | |

<국문 초록>

臺山 金邁淳은 당대에 유통되는 저술들을 거의 섭렵했던 광범한 독서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해 이조 후기 학계를 정밀하게 진단하였다. 그는 도학자이자 경학가임에도 보다 유연한 사고로 학문을 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한 저작 『闕餘散筆』 6권 3책을 남겼다.

대산의 從弟 金龜淳 (1793-1869)은 『궐여산필』 首篇에 대해 ‘이 십수 장은 바로 『문목표보』와 『유고』의 골자’라고 평한 바 있거니와 이 발언은 사실 『궐여산필』 전편에 그대로 해당된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 속에는 顧炎武, 陸隴其, 阮元 등을 비롯한 10여 명의 中朝 학자와 일본학자 太宰純에 대한 비평이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과 일본의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로, 이들에 대한 대산의 비평은 인상비평적 성격의 短評도 있거니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학술 성격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논리적으로 비평한 것이다.

* 성균관대학교 / gdfcel@hanmail.net

본고에서는 중국과 일본 학자들에 대한 대산의 비평을 통해 고증학, 불교, 양명학 등에 대한 이조후기 주자학자들의 시각과 고민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조명하였다.

【주제어】 闕餘散筆, 中日 학자에 대한 비평, 고증학, 불교, 양명학

I. 서론

대산은 주자학자이다. 19세기를 대표하는 경학자의 한사람이면서 동시에 연천과 함께 문장 대수로서 ‘淵臺之文’으로 일컬어지며 당대의 文章大手로 추앙을 받기도 하였다. 대산은 주자학에 매몰되어 세상의 학문을 모르는 고루한 학자는 아니었다. 당대에 유통되는 저술들을 거의 섭렵했던 광범한 독서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를 통해 조선 후기 학계를 정밀하게 진단하였다. 그는 도학자이자 경학가임에도 보다 유연한 사고로 학문을 대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한 저작 『闕餘散筆』 6권 3책을 남겼다. 대산의 從弟 金龜淳(1793-1869)은 『궐여산필』 首篇에 대해 ‘이 십수 장은 바로 『문목표보』와 『유고』의 골자¹⁾’라고 평한 바 있거니와 이 발언은 사실 『궐여산필』 전편에 그대로 해당된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 속에는 顧炎武, 陸隴其, 阮元 등을 비롯한 10여인의 中朝 학자와 일본학자 太宰純(1680-1747)에 대한 비평이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과 일본의 학계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로, 이들에 대한 대산의 비평은 인상비평적 성격의 段評도 있거니와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학술 성격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논리적으로 비평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비평들을 통해 대산의 학문적 입장을 살펴보려 한다.²⁾

1) 金龜淳, 성대본 『궐여산필』, 「闕餘散筆跋」. “惟此十數紙, 卽標補遺稿之骨子.”

2) 본고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본고와 착상이 자못 비슷한 논문을 하나 발견하였다. 일본학자의 논문으로, 논의의 방향이나 층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참고

학문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자와 그 학문 성격에 대한 비평은 필수적 요소이다. 그 비평에 작가의 세계관이나 학문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靑丘山篋』에 남겨진 國外학자들에 대한 대산의 비평도 예외는 아니다. 외려 국외 학자에 대한 비평이므로 심리적 부담에서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더욱 예리하고 신랄하게 비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비평이 국내 학계의 흐름에 대한 대산의 생각에 세밀하게 접근하는데 보다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關餘散筆』은 箚記 형식의 저작으로 저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쓴 글이다. 漫筆이나 散筆이 전통적인 글쓰기 갈래의 하나였기는 하지만 주자 학자군 계열의 작가들에게 흔히 지어진 갈래는 아니고, 게다가 중일 학자 및 그 학문 경향에 대한 비평 같은 것은 더욱 흔하지 않은 예이다. 국외 학자의 저술과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인 당시 학계에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산의 비평은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또 이 작업을 통해 훈고학, 양명학, 불교 등에 대한 이조후기 주자 학자들의 시각의 일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고증학의 유폐에 대한 우려와 비판

경직화 되어간 주자학이 말패를 노정했듯이 무분별한 훈고학 수입 역시 몇 가지 유폐를 안고 있었다. 이런 점에 대해 당대의 학자들 역시 이미 단편적인 지적을 하고 있었다.³⁾ 이 장에서는 中日학자에 대한 대산

자료로 소개한다. (山内弘一, 「金邁淳의 學問觀」1994,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武田幸男 編, 山川出版社, 1997.)

3) 대표적으로 淵泉 洪奭周(1774-1842)를 들 수 있다. 연천은 『학강산篋』 권1 84則에서 “近世之爲宋學者, 專以訓詁爲務. 其弊也, 支離破碎, 又甚者, 馳辭物表溺心, 空虛聚訟於無徵之案, 標高於不可詰之域, 爲漢學者徵之, 遂摺扶斷簡, 搜剔破器, 矻矻以攷證爲尙. 二者不同, 然其爲無用則一也.”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연천의 아우 沆瀣 洪吉周(1786-1841) 역시 그의 글 「戒言」에서

의 비평을 통해 대산이 가진 사고의 일단을 짚어보도록 하자.

1. 현학적 실사구시와 훈고학의 流弊 비판

實事求是란 이조 후기 학계의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해 秋史(1786-1856)는 그의 「實事求是說」에서 ‘이 말은 학문의 가장 중요한 도[此語乃學問最要之道]’라고 극찬하였다. 漢學과 宋學이 分岐한 이조 후기 학계의 양상을 진단하며 굳이 학문의 문호를 다룰 필요가 없이 이 한 마디의 말만 실천하면 된다는 논리를 폈다.⁴⁾ 이조후기 실사구시 학파의 대표학자 다운 발언이다. 이에 비해 대산의 발언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근래의 학자들이 입만 떼면 漢儒를 칭송하니, 주자에게 쌓인 감정이 있는 것은 주자가 古註를 순전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주자가 尊尙한 바 開卷第一義는 당최 머리를 내저으며 강론하지 않으니, 필경 그 학문은 宋學도 아니고 漢學도 아니요 그저 개인적인 私見일 뿐이다. ‘實事求是’란 것이 정말 이런 것이던가?⁵⁾

청대의 대표적인 고증학자 阮元(1764-1849)을 비평하기 위해 포석으로 던진 말이다. 대산이 바라보기에 이조후기 학계의 유행은 대체로 漢學이며, 그들의 가장 주된 학문 활동은 주자 흠집내기이다. 그들이 주자를 비판하는 가장 큰 論據는 주자가 古註를 순진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주자의 태도를 싫어한 결과 주자학의 開卷第一義이자 성리학의 핵심요체인 居敬窮理에 대해서도 일체 연구를 하지 않았다. 대산의 시

고증학의 폐단에 대해 극론한 바 있다.

4) 金正喜, 『阮堂集』 卷1 「實事求是說」 참조.

5) 金邁淳, 『臺山集』(『韓國文集叢刊』 294집, 한국고전번역원) 卷17, 「關餘散筆 榕村第三」, p.601. “近日學者, 動稱漢儒, 所積憾於朱子者, 以其不純用古註. 而開卷第一義, 朱子之所尊尙者, 却又掉頭不講. 畢竟其學, 非宋非漢, 只是自己之私見, 實事求是者, 果如是乎?”

각에서 주자학 공격은 ‘宋學도 아니고 漢學도 아닌’ 그저 ‘개인적인 私見’에 불과한 것이었다. 대산은 이에 대해 ‘實事求是란 것이 정말 이런 것-訓話를 트집으로 주자학을 부정하는 것-이던가?’ 하고 매운 회의를 던진다. ‘實事求是’라는 구호가 진실추구라는 그 본래 목적을 잊고 개인의 博學을 자랑하고 남을 공격하는 현학의 수단과 구호로 전락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훈고를 통해 이룩한 고증학의 성과를 대산이 모르는 바 아니다.⁶⁾ 그런 대산이 실사구시에 대해 이런 회의적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판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고증학이 밝혀낸 결과를 바탕으로 선불리 판단하여 유가의 宗旨를 해칠까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서이다.

阮葵生은 건륭 연간의 사람이다. 저서 『茶餘客話』에 그의 伯祖父 樾軒 阮應商이 자제들에게 훈계한 말이 실려 있다. “근래에 후생 소자들을 보니 모두 毛奇齡의 『西河集』을 즐겨 읽는다. 그의 인용은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니 반드시 근원을 찾아서 한 자 한 자 절정하고 고증하여 부디 폭포와 같은 장관설에 속지 말아라.”

또 『閩百詩話』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堯峰 汪琬은 사사로이 典禮를 만들고, 天生 李因篤은 역축으로 고실을 만들고, 毛大可(毛奇齡)는 경문을 찢어버렸으니, 후학들을 가르친 죄가 적지 않다.”

汪琬, 李因篤, 毛奇齡 3人 모두 청나라 초엽의 巨儒로서, 근래의 우리 조선의 학자들이 진진하게 艷慕하며 地負海涵이라 여겨온 자들이다. 中州의 경우는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이미 그들의 伎倆을 간파해내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자가 있으니, 이런 점이 우리 조선의 학자들이 중주를 따라잡지 못하는 부분이다.⁷⁾

-
- 6) 고증학의 학풍을 수용하여 완성한 다산의 대저작 『매씨서평』에 대해 대산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만 보아도, 대산이 무조건적으로 고증학을 배척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7)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596. “阮葵生, 乾隆間人. 所著『茶餘客話』, 載其伯祖樾軒應商戒子弟語, 曰: ‘近見後生小子, 皆喜讀毛西河集, 其稱引未足爲據. 必須搜討源頭, 字字質證, 慎勿爲懸河之口所謾.’ 又記『閩百詩話』, 曰: ‘汪堯峰[琬]私造典禮, 李天生[因篤]杜撰故實, 毛大可[奇齡]割裂經文, 貽誤後學匪淺.’ 汪李毛三人, 皆清初鉅儒, 近日東士所津津艷慕, 以爲地

사실 중국 학계에서도 진작부터 고증학의 병폐에 대한 지적과 경계가 있었다. 특히 毛奇齡(1623-1716)은 비판과 칭찬의 중심에 자주 서 있곤 한 인물인데, 그에 대해 건륭 연간의 학자 阮葵生⁸⁾이 자신의 詩話에서 의견을 피력하였다. 완계생은 자신의 백조부의 말을 인용하여 ‘폭포와 같은 장광설에 속지 말라.’고 자제들에게 훈계했으며, 또 汪琬⁹⁾에 대해서는 ‘사사로이 典禮를 만들었다.’ 李因篤¹⁰⁾에 대해서는 ‘억측으로 고실을 만들었다.’ 毛奇齡에 대해서는 ‘경문을 찢어버렸다.’고 혹평을 하였다. 고증학자들이 경전을 거리낌 없이 훼손하고 작위적으로 재편성한 데 대한 불평한 심기가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 대신은 완규생의 이러한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으며 청나라 고증학의 병폐를 고스란히 닮아가는 우리 학계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地負海涵의 巨儒라 존경해 마지않는 이 3인의 학술에 대해 중국에서는 이미 반성의 풍조가 일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일시에 조선의 온 학계가 고증학에 쓸려 가는 것을 우려했다.

대신이 고증학을 경계한 것은 그들이 경전을 마음대로 편집하거나 억측으로 고실을 만들거나 현란한 전고 인용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것 때문만이 아니다. 표면의 현상을 걷고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보다

負海涵者也。而中州則相去未遠，已有覷破伎倆，而不爲其所瞞者。此東人之不及中州處也。”

- 8) 阮葵生(1727-1789) : 청나라 江蘇省 山陽 사람. 자는 寶誠, 호는 桴山이다. 관직은 刑部右侍郎에 올랐다.
- 9) 汪琬(1624-1691) : 자는 菴文·液仙, 호는 堯峯·純翁이며, 長洲(江蘇省 吳縣) 사람이다. 1679년 博學鴻儒考試에 장원 합격하여 翰林院 編修에 제수되었다. 王士禛·魏禧·侯方域 등과 시와 고문에 이름을 나란히 하였다. 저술로 閻若璩·徐乾學 등의 교정을 받은 『古今五服考異』가 있다.
- 10) 李因篤(1631-?) : 자는 天生·子德이며, 山西省 洪洞 사람이다. 명말청초의 경학자로, 1679년에 博學鴻詞로 천거되어 翰林院 檢討를 역임하였다. 주자의 학문을 중주로 하였고, 훈포에도 정밀하여 毛奇齡과 古韻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였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경에 ‘眞’자가 없다는 말은 고정림의 주장이 실로 옳다. 그리고 후세에 전해내려 오면서 ‘假’와 짝이 되어 秦漢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진은 노장에서 말한 진과 의미가 달라졌음은 고정림이 이미 언급하였으니, 무극의 진을 이런 의미로 간주한들 무슨 상관인가? 정림의 본 뜻은 明末의 龍谿, 王畿, 緒山 등의 사람들이 禪學으로 유학을 가장하는 폐단을 심히 미워한 나머지 이런 주장을 편 것이지 애초에 濂洛을 비판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이 攷證에 치우쳐 학설이 拘滯에 손상되어 연좌의 뿔가 위로 周子에게 미쳐, 결국 오늘날 중국 학자들이 『설문해자』를 학문의 종주로 삼아 집주의 설을 毀斥하는 풍조를 열었고 보면 정림 역시 지나친 賢知에 책임이 있다.¹¹⁾

顧亭林(1613-1682)은 古經의 글자를 하나하나 연구하다가 五經에는 ‘眞’자가 없고 『老子』와 『莊子』에 처음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오경에 ‘眞’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禪學의 논리와 흡사한 설을 펴던 명나라 양명학자 龍谿 王畿¹²⁾, 緒山 錢寬¹³⁾ 등의 학설을 고염무가 공박하는 과정에서 周濂溪(1017-1073)의 「태극도설」에 ‘眞’자가 있음을 들어 明代 노장 학풍의 유행은 그 책임이 주렴계에게 있다고 말하였던 것이다.¹⁴⁾ 송대 성리학을 존송하던 유가의 입장에서 그 시조격인

11)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607. “五經之無眞字, 亭林考之誠是矣. 而後世相傳, 與假爲對, 秦漢時人言眞, 與老莊異指, 則亭林亦已言之矣. 無極之眞, 何妨以此意看耶? 亭林本意, 深疾明末龍谿王畿緒山(錢德洪)輩以禪竄聖之弊, 而爲此論, 初非欲侵詆濂洛. 而其學偏於攷證, 其說傷於拘滯株連之累, 上及周子, 以啓近日中州學者宗說文毀集註之謬風, 則賢知之過, 亭林與有責焉.”

12) 王畿(1498-1583) : 자는 汝中이며, 龍溪는 호이다. 山陰(浙江省 紹興) 사람이다. 명나라 때 경학가로, 王守仁의 제자이다.

13) 錢寬(1496-1574) : 자는 德洪·洪甫이며, 緒山은 호이다. 浙江省 餘姚 사람이다. 명나라 때 학자로, 1532년 진사가 되어 蘇學 教授·刑部 郎中 등을 지냈다. 왕수인의 문하에서 王畿와 함께 高弟로 일컬어진다. 良知를 至善으로 보아 天理라고 주장하였으며,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양명학을 전파하는데 공헌하였다.

주렴계 학설의 기반을 부정하는 이 발언은 자신들이 딛고 선 학문 지평의 전반을 부정당하는 굉장한 위험한 것이었다. 대산 역시 이런 점이 우려되었다. 그로 인해 “결국 오늘날 중국 학자들이 『설문해자』를 학문의 종주로 삼아 집주의 설을 毀斥하는 풍조를 열었고 보면 정림 역시 지나친 賢知에 책임이 있다.”라고 꼬집었던 것이다.

이 말에 이어서 대산은 “仁과 智 두 글자는 2典 3謨에 보이지 않지만, 孔孟 이후 五德의 반열에 들었다. 湯誥 이전엔 ‘性’字가 없었고, 공자 이전엔 ‘理’자가 없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로서 입만 떼면 性和 理를 말하는 이들은, 그 말을 하신 분이 모두 聖人이라는 이유로 尊信하여 다른 말이 없다. 지난날 가령 殷周 이후의 여러 성인을 심히 尊信하지 않다가 그 사이에 한 사람의 고증학자가 나와 어리석도록 집요하게 고금을 가지고 與奪을 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仁智니 性理니 하는 글자가 典謨에 없는 것이 논란거리가 될 터이니, 眞 자가 五經에 없는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¹⁵⁾라고 말했다.¹⁶⁾ 요컨대 쇠세한 훈고와 고증에 매몰되어 大旨를 보지 못하면 종내에는 글자 1, 2개의 유무를 가지고 儒學의 根幹

14)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607. “顧亭林『日知錄』曰: 五經無眞字, 見於老莊之書. 『說文』曰: ‘眞仙人變形登天也.’ 於是有眞人眞君眞宰之名. 後世相傳, 乃遂與假爲對. 李斯書‘眞秦之聲也’, 韓信傳‘卽爲眞王耳’, 竇融上光武書‘豈可背眞舊之主?’ 與老莊之言眞, 亦微異其指矣. (今謂眞, 古曰實; 今謂假, 古曰僞.) 隆慶間, 學者厭五經而喜老莊, 黜舊聞而崇新學. 會試論語題程文破云聖人教賢者, 以眞知在不昧其心. (『莊子』「大宗師篇」云: ‘且有眞人而後有眞知.’) 始明以莊子之言, 入於文字, 自此五十年間, 舉業所用, 無非釋老之書. 雖然, 以周元公道學之宗, 而其爲書, 猶有所謂無極之眞者, 吾又何責乎今之人哉?”

15)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607. “仁智二字, 典謨所無, 而鄒魯以後, 列於五德, 湯誥之前無性字, 仲尼之前無理字, 而今之學者, 開口必稱性理者, 以其言之者皆聖人, 故尊信而無異辭耳. 向使殷周以下諸聖人, 不甚尊信, 而有一攷證者, 出於其間, 顛顛然執古今, 以爲與奪, 則仁智性理等字之無於典謨, 其爲可議, 何異於眞字之無於五經耶?”

16) 이밖에도 이와 관련하여 대산은 고염무의 논의를 몇 차례나 언급하였다. 대산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을 송두리째 흔들거나 부정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 걱정한 것이다.¹⁷⁾

책언을 하나 덧붙이자면 고증학에 유포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그 실상에 대한 미덥지 못한 마음 역시 고증학을 비판적으로 대하는데 큰 몫을 했다. 淸나라 유학자 張伯行의 『道南源委』과 우리나라 이덕무의 『아정유고』를 보고 대산은 의외로 사실이 많이 틀린다는 데에 놀랐다. 장백행은 충실한 주자학자로 정평난 사람으로 考據에도 밝았는데, 그런 그의 저술에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었음에 놀란 것이다.¹⁸⁾ 또 하나는 고증에 뛰어나다고 알려진 이덕무의 저술에 역시 적지 않은 오류가 있음을 보았던 것이다.¹⁹⁾ 즉 훈고와 고증의 중요성을 力說하는 사람의 저술이 도리어 그 점에서 허술함을 면치 못한 것을 보고, 그 허술함에 믿음을 갖지 못한 듯하다.

2. 古文尙書에 대한 대산의 입장

청대의 고증학이 이룬 걸출한 성과 가운데 하나가 ‘僞古文’에 대한 논증이다. 이로 인해 『尙書』에 대한 뜨거운 논쟁과 관심이 제출되었다. 이 논쟁은 조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茶山과 淵泉을 비롯한 학자들이 모두 이와 관련한 저술을 남기고 있다. 대산 역시 이 부분에 적지 않은 관심이 있었다. 茶山은 유배에서 풀려 돌아와 마재에 살 때 인근 漢陰에 살고 있던 대산에게 자신의 『매씨서평』을 보내어 문제점을 질정한 바

-
- 17) 阮元이 「性命古訓」이란 글에서 성리학의 용어들을 두고 古經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게 비판했다.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601.)
- 18) 金邁淳, 『臺山集』 卷19, 「闕餘散筆 文王第五」, p.635. “淸儒張伯行『道南源委』, 起自龜山, 下逮元明諸儒. 凡南方學者, 祖述洛閩, 而有聞于當時者, 靡不登載, 所列家閥爵里事行著述, 極其詳悉, 而細檢亦有誤處.” 이 아래로 실제 증명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 너무 길어 전문은 생략한다.
- 19) 金邁淳, 『臺山集』 卷19, 「闕餘散筆 文王第五」, p.636. “李德懋『雅亭稿』, 載「宋遺民補傳」, 蒐羅採摭, 頗詳博可喜, 而其中有顯然謬誤者. …(중략)… 雅亭之學, 長於考證, 而輕信寡裁乃如此, 可歎.”

있다. 이때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조목조목 토론하곤 하였는데, 古文『尙書』에 대한 帶山の 관심이 이를 계기로 더욱 촉발되었음은 물론이다.²⁰⁾

주자 이후 중국 儒者로서 古文『尙書』를 논한 자들 가운데 절반은 의심을 하였고 절반은 믿었다. 의심된다고 판단한 자는 吳澄이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자는 毛奇齡이다. 오징의 주장은 “四代の 『尙書』는 나뉘어 두 파가 되었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문자의 難易에 착안하여 자신의 견해를 주장한 것으로 주자의 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근세에 이 학설을 주장하는 자가 매우 많아 전력을 다하여 ‘偽古文’을 비방하기에 여념이 없으니, 閻若璩와 宋鑑은 그 가운데서도 유난한 자이다. 모기령은 “『고문상서』의 역을 함은 주자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여 『冤詞』 8권을 지어 극구 매도하였다. 이는 經傳을 保衛한다는 명분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의도가 오로지 주자를 공격하는데 있다.²¹⁾

고문『상서』에 대해 본격적인 의문을 제기한 최초의 학자는 朱子이다.²²⁾ 주자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며 매달렸고 그 결과 다양한 성과가 제출되었다. 그들 가운데 절반은 주자의 설을 믿었고 절반은 비판하였다. 주자의 주장을 계승하여 고문『상서』가 위작임을 증명한 대표적 인물은 閻若璩(1636-1704)²³⁾와 宋鑑²⁴⁾이고, 주자의 설을 비

20) 여기에 대해 대산과 다산의 往復書만을 가지고 다룬 선행 업적이 있다. ① 실시학사경학연구회, 『茶山과 薑山, 淵泉의 經學論爭』, 한길사, 2000. ② 함영대, 「다산과의 교유정신에 나타난 대산의 학술정신」, 『문헌과 해석』 45, 2008.

21) 金邁淳, 『臺山集』 卷16, 「闕餘散筆 尙書第二」, p.574. “朱子以後, 中州儒者論古文者, 疑信相半, 聚訟紛然. 而斷以爲可疑者, 吳澄也, 斷以爲不可疑者, 毛奇齡也. 吳氏之言曰: ‘四代之書, 分爲二手, 不可信也.’ 此只從文字難易起見, 不出朱子所疑之外, 而近世主此說者甚衆, 詆毀不遺餘力, 閻若璩·宋鑑, 其尤也. 毛氏則謂: ‘古文之冤, 始自朱氏.’ 作冤詞八卷, 極口嘲罵. 此則假託衛經, 而其意專在於攻朱子也.”

22) 단순한 의문을 제시한 학자는 吳棫(1100-1154) 등을 비롯해 주자 전에도 있었다.

관한 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毛奇齡이다. 모기령은 8권의 저술 『古文尙書冤詞』를 지어 僞古文을 제기한 주자의 논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뒷날 모기령의 학설이 술한 학자에게 비판을 받았듯이 사실 古文『尙書』는 위작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望溪 方苞(1668-1749)와 榕村 李光地(1642-1781)는 모기령의 『冤詞』를 이어 주자의 僞古文說을 극구 비판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한 논거는 대체로 이렇다. ① 고문『상서』에 僞古文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나, 僞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는 아무래도 거의 성현에 수준에 버금가는 선진시대의 학자였을 것이다. ② 伏生이 남긴 今文이 유독 더 어렵고 孔壁에서 발견한 古文이 대체로 더 쉽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어려운 부분은 잘 외워지지 않는 법이므로 복생이 그 부분을 유난히 신경 써서 기억하였고, 그 때문에 今文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전한 것이다. ③ 고문의 문체가 더 쉬운 것은 교정 과정에서 생삼한 글자와 문장을 쉬운 글자와 문장으로 고쳤기 때문일 것이다. ④ 今文이 고문보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복생이 딸에게 구술하여 전수할 때 오류가 발생했는데, 鼂錯이 교정할 때 스승의 가르침을 함부로 고칠 수 없어 그 오류를 감히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생경스러운 부분이 그대로 전해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⑤ 천년 세월 벽속에 묻혔던 고서가 나왔는데 결락된 글자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있으나 역시 교정으로 고쳤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등의 이유를 바탕으로 그들이 내린 결론은 ‘「고문『상서』」는 내용을 증감하고 문장을 윤색하였기에 四代의 완전한 문장을 다하지는 못했다고 짐작된다.’ 라고 한다면 이치상 혹 그럴 수 있거니와, 그것을 두고

-
- 23) 閻若璩는 30년간이나 이 연구에 매달려 집중적으로 문헌 분석을 하고 나서, 역사적·문헌학적인 추론을 통해 그 성과를 『尙書古文疏證』이라는 역저로 펴낸 바 있다.
- 24) 宋鑿 : 자는 元衡, 호는 半塘이며, 山西省 安邑(運城) 사람이다. 청나라 때 경학가로, 1748년 진사가 되어 浙江의 鄞縣縣令 등을 지냈다. 문자학에 정밀하여 『說文解字疏』를 저술하였으며, 閻若璩의 『古文尙書疏證』을 요약하여 『尙書考辨』을 저술하였다.

「순전히 위서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²⁵⁾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산은 이런 견해를 제출한다.

삼가 일찍이 여러 설을 절충하여 이렇게 논리를 펴 보았다. 고문은 실로 의심스럽다. 그러나 경전에 실려 학관에 세워져 학자들이 존송하며 계승한 지 이미 천여 년이 되었다. 그러한 것을 어찌 일체 쓸어 없앨 수 있단 말인가? 또 (모기령이) 매색에게 비판을 받은 부분은 억지로 체재를 모방하고 구차하게 편목을 채워서 고금을 속였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순임금에서 우임금까지 전수된 16언의 비결은 『순자』와 마옹의 『맹자외서』 등의 서적에도 나오는데,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해보면 『맹자』 ‘從其大體’, ‘口之於味’ 등의章 및 『中庸』 ‘擇善固執’ 章의 의미와 꼭 맞아 떨어져 참으로 千聖傳心の 요체가 되니, 이것을 어찌 매색이 막을 수가 있겠는가? 만약 의심하는 것이 지나쳐서 이러한 큰 관건이 있는 곳까지 일체 이동시켜려 한다면 이는 참으로 기탄없는 소인배의 짓이다.(기탄없는 소인배의 짓이란 용춘의 말이다.)²⁶⁾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대산은 고증학에 대해 배척 일변도의 태도를

25) 金邁淳, 『臺山集』 卷16, 「闕餘散筆 尙書第二」, p.574. “望溪方苞, 榕村李光地, 又力主不可疑之論. 其言曰: 古文疑其僞者多矣. 抑思能僞爲是者誰歟? 漢之儒者如董仲舒·劉向, 醇矣博矣. 人心道心之旨, 伊訓太甲說命周官之篇, 二子豈能至之? 況魏晉六朝之間乎? 若夫文體難易之疑, 則人之於書, 其鉤棘聱牙者, 誦數必多, 着心必堅牢而永久. 伏生之偏得其難者, 安知不以此乎? 又伏生之書, 其女口授, 有訛音, 而鼂錯不敢改, 故難者愈難, 孔壁之書, 自其校出之時, 或苦其奧澁, 稍以顯易之辭更之. 又其書藏久而顯, 安知傳者之不潤色於其間哉? 故易者愈易. 然則古文云者, 疑其有增減潤色, 而不盡四代之完文, 理或有之矣. 謂之純爲僞書則不可也.”

26) 金邁淳, 『臺山集』 卷16, 「闕餘散筆 尙書第二」, p.575. “竊嘗折衷諸說而爲之言曰: 古文則誠可疑也. 載爲經典, 立之學官, 儒者之瓊享譜承, 已千餘年矣. 何可一切掃夫? 且所譏乎梅氏者, 以其强摹體裁, 苟充篇目, 以誣往古而欺來今也. …… 况舜禹十六言, 見於荀子馬融孟子外書等書. 而味其旨義, 與孟子‘從其大體’, ‘口之於味’等章, 及中庸‘擇善固執’之訓, 昭然相符, 洵爲千聖傳心之要. 此豈梅氏之所能杜撰耶? 若疑之之過, 並與此等大頭顱所在而欲爲移動, 則是真小人之無忌憚也.(小人無忌憚, 榕村語)”

보인 편협한 학자는 아니다. 다만 맹목적 고증은 말단을 추구하느라 눈이 멀어 경전 연구의 참 목적을 잊고 本末을 전도시킬 수 있다는 근심을 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 가운데 ‘경전에 실려 학관에 세워져 학자들이 존중하며 계승한 지 이미 천여 년이 되었다. 그러한 것을 어찌 일체 쓸어 없앨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학문이란 최초 원전의 字句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유통되고 합의된 경전의 의미와 그를 바탕으로 쌓아온 정신적 문화적 축적을 거것으로 몰아 없앨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16자의 비결이 위고문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무시해서는 부당하다는 견해이다.

이런 대산의 생각은 茶山에게 답한 편지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희미하다.[人心危道心微]」라는 여섯 글자는 절대로 버릴 수 없습니다. 설령 이 여섯 글자가 본래 불경(佛經)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천구(天球)와 홍벽(弘壁)처럼 떠받들어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여 예(禮)를 따르는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유가(儒家)에서 나와 『도경』의 근본이 된 것이겠습니까. 매색(梅賾)의 위작(僞作)은 매색의 위작 그대로인 것이고 순자(荀子)의 진실은 순자의 진실 그대로인 것이니, 저것을 비호하기 위해 이것을 높여서도 안 되고 저것을 배척하기 위해 이것까지 버려서도 안 됩니다.”²⁷⁾라고 하였다. 즉 古文 가운데 위작임에 틀림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불경에서 근원한 文字라 하더라도 그 의미가 유가의 宗旨에 부합하고 오랫동안 그를 바탕으로 정통 유학의 정신을 확립해 왔다면 버릴 수 없다는 게 대산의 논리로써, 古文『상서』가 그것이 僞經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역시 경전의 지위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²⁸⁾

27) 丁若鏞, 『茶山詩文集』 卷20 「答金德叟」 별지. “人心危道心微六字, 決不可捨. 設令六字本出於佛經, 亦當戴之捧之, 如天球弘壁, 以爲克己復禮之本. 況出於儒家, 本於道經者乎? 梅僞自梅僞, 荀眞自荀眞, 不可以護彼而尊此, 亦不可以斥彼而捨此也.”

28) 김문식은 『조선후기경학사상연구』, 일조각, 1996.의 p.22 및 p.122에서 대산

Ⅲ. 양명학 및 불교에 대한 비판

1. 양명학에 대한 비판

爲堂이 조선의 양명학 계보를 말할 때 초기 양명학자의 하나로 꼽았던 谿谷²⁹⁾은 일찍이 그의 『漫筆』 ‘我國學風硬直’ 조에서 주자학 일색으로 경직된 조선학풍을 비판한 바 있거니와³⁰⁾ 臺山은 그에 대해 또한 자신의 견해로 계곡의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³¹⁾ 대산이 반박하는 가운데 ‘谿谷의 말이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계곡이 논한 동국 학문풍토의 폐단은 또한 언제나 절실한 반성과 진단이다.’라고 전제한 것을 보면 학

의 경학에 대해 ‘송학 중심의 한송절충론’으로 보았는데, 이 결론은 조심스럽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산이 경학이 ‘한송절충론’의 성격을 띠다기 보다 유가의 종지에 맞으면 漢學(고증학)의 성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세하나마 결이 다른 문제로 보인다.

- 29) 정인보는 그의 저술 『양명학연론』에서 계곡을 초기 양명학자의 하나로 꼽았다. 『담원국학산고 양명학연론』, 문교사, 1955, p.270.
- 30) 張維, 『谿谷先生漫筆』(『韓國文集叢刊』 92집, 한국고전번역원) 卷1, ‘我國學風硬直’, p.573, “中國學術多岐, 有正學焉, 有禪學焉, 有丹學焉, 有學程朱者, 學陸氏者, 門徑不一. 而我國則無論有識無識, 挾筴讀書者, 皆稱誦程朱, 未聞有他學焉. 豈我國士習果賢於中國耶? 曰: 非然也. 中國有學者, 我國無學者, 蓋中國人材志趣, 頗不碌碌, 時有有志之士, 以實心向學, 故隨其所好而所學不同, 然往往各有實得. 我國則不然, 齷齪拘束, 都無志氣, 但聞程朱之學世所貴重, 口道而貌尊之而已. 譬猶墾土播種, 有秀有實而後, 五穀稊稗可別也, 茫然赤地之上, 孰爲五穀, 孰爲稊稗哉?”
- 31)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593. “谿谷之言, 不無意見, 其論東人症候, 亦未嘗不切中膏肓, …… 譬之農焉, 無論民之勤惰巧拙, 授之穀而教之種, 然後粒米握粟, 可得而食也. 若任其所爲, 或稊或穀而漫不訾省焉, 則及秋而穫, 稊穀相半, 民猶患饑, 畢竟遍地青黃, 都是稊稗, 一穀不可得見, 則其將曰彼青黃者猶賢於赤耶? 然則程朱者, 今之孔孟也. 四書集註者, 今之五穀也. 俛首刳心而已, 碌碌不碌碌, 係其人品高下耳. 外是而求志氣, 不流於猖狂妄作也者, 寡矣.”

문의 다양성에 대해 대산이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양명학과 관련해서는 그 학술에 실질이 없다고 생각했음은 틀림없다. 대산이 중국의 학자와 저술을 섭렵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 본 학자가 몇 있다. 대표적으로 容村 李光地³²⁾, 三魚 陸隴其³³⁾를 비롯하여 涇陽 顧憲成³⁴⁾, 梁溪 高世泰³⁵⁾ 등의 학자를 들 수 있다. 우선 용촌에 대한 대산의 비평부터 들어보자.

용촌의 학문은 ‘尊朱黜王’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큰 항목의 公案에 있어서는 도리어 힘껏 왕양명의 학설에 동조하며 ‘(왕양명의 학설이)홀로 증자와 자사의 종지를 얻었다’고 하고 있다. …(중략)… 또 스스로 問答을 설정하여 “장구의 차례는 고본대학과 같지만 의리는 주자와 다르지 않으니, 주자께서도 내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또 “이렇게 經을 해설하면 말이 번잡하지 않고 이치가 간명하니, 장차 요강학파의 학자들도 입을 댈 곳이 없게 된다.” 하였다.

무릇 천하엔 둘 다 옳은 경우도 없고 둘 다 그른 경우도 없다. 더구나 경전의 의리는 그 얼마나 엄정한 것이던가? 털끝만한 차이가 천리의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 내거니와 주자가 정리한 현행본 『대학』과 고본 『대학』을 비교해 보자면 장구의 차례가 틀리고 문장의 의리가 배치됨은 단순히 털끝만한 차이라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현행본 『대학』의 의리를 가지고 고본 『대학』의 차례에 끼워 맞추고서는 ‘주자께서 나의 말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다면 이는 네모

-
- 32) 李光地(1642-1781) : 字는 晉卿, 호는 厚庵 또는 榕村. 복건성 安溪 사람이 다. 청나라 康熙 9년(1670)에 진사에 나아가 內閣學士, 兵部右侍郎, 吏部尙書, 文淵閣大學士 등을 지냈다. 시호는 文貞이다.
- 33) 陸隴其(1630-1693) : 초명은 龍其였으나 뒤에 隴其로 개명하였다. 자는 稼書, 절강성 平湖 사람이다. 역시 康熙 9년(1670)에 진사에 나아가 관직생활을 하였으며, 철렴하다는 평가와 함께 치적이 있었다. 擁正 2년(1724) 文廟에 從祀되었다. 시호는 清獻이다.
- 34) 顧憲成(1550-1612) : 자는 叔時이며, 涇陽은 호이다. 시호는 端文, 江蘇省 無錫 사람이다. 주자의 폐단은 ‘拘’에 있고 왕수인의 폐단은 ‘蕩’에 있다고 여겨, 정주학과 육왕학을 조화하려 하였다.
- 35) 高世泰 : 자는 彙旆이며, 江蘇省 無錫 사람이다. 청나라 초기 성리학자로, 濂溪書院을 보수하여 程朱學을 강구하였다. 梁溪에서 강학하였다. 주자를 祖宗으로 삼아, 陸象山·王守仁의 心學을 배척하였다는 평이 있다.

난 자루를 등근 구멍에 끼워 넣으면서 사람들을 보고 ‘꼭 맞네 그러.’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장구의 차례가 이러하면서 문장의 의리도 이러한 것은 번잡한 말이 되고, 장구의 차례는 저러하면서 문장의 의리가 이러한 것은 번잡하지 않은 말이 된다하니, 이는 하나를 가리켜 많다 하고 둘을 가리켜 적다하는 것이 가깝지 아니한가? 나는 믿지 못하겠다.

대산은 榕村의 학문에 대해 겉으로는 ‘尊朱黜王’를 표방하며 주자학 존숭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명학의 영향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 비판하고 있다. 그 근거로 『대학』 해석에 대한 용촌의 태도를 들고 있다. 하나는 유학의 도통 계보에서 왕양명만이 홀로 자사와 증자의 종통을 계승하였다고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정자가 수정하고 주자가 보완한 현행본 『대학』 편차를 부정한 것이다. 榕村은 자신의 학설을 세운다는 명분하에 왕양명의 학설에 동조하여 ‘고본 대학의 편차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학설이 ‘주자의 본자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산은 네모난 자루를 등근 구멍에 끼워 맞추려 한다는 비유를 들어가며 용촌의 논지가 모순된 것임을 역설하였다.

용촌은 중국학술계에서 ‘主持正學’으로 추앙을 받고 있던 인물로, 주자학의 학술 의리를 충실히 실천하고 정치에 반영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던 터이다. 뿐만 아니라 대산 역시 용촌이 經術과 文章으로 ‘中州大儒’라 불렸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주역』과 『시경』에 대한 여러 說에 前賢들이 밝히지 못한 탁월한 견해가 있음을 긍정하고 존경하던 입장이었다.³⁶⁾

그럼에도 대산은 용촌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闕餘散筆」에서 용촌을 두고 行己의 規模가 方便을 좋아하고 화합을 우선시 한다고 입을 떼고는 경전에 대해 담론할 때도 역시 이런 방법을 쓴다고 했다. 이어

36)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591. “榕村李光地, 以經術文章, 顯用於康熙時. 官至太學士, 號爲中州大儒. 今得其全集而讀之, 易詩諸說, 包綜瞻博, 見解敏妙, 往往發前未發. 語錄十卷, 商確古今, 議論儘多可觀.”

해박한 학문과 능숙한 말솜씨가 하도 유려하고 매끄러워 비판이 쉽지 않다고 말했는데, 이는 학자에 대한 평가로서는 통렬한 것이다. 이 비판의 말미에 이르러서는 “(주자학과 양명학)두 학설 사이를 배회하다가 따로 문호를 세워, 명명백백히 왕양명을 따름에도 ‘내가 왕씨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장구의 차례만 그러할 뿐이다.’ 하고, 명명백백히 주자를 어김에도 ‘내가 주자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이치는 본래 같다.’ 한다. 그의 마음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그의 말이 너무 장황하지 않은가?”³⁷⁾라고 하기까지 하였다. 대산이 용춘에 대해 이렇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한 이유는 크게 2가지쯤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현란한 용춘의 말솜씨가 학문에서나 현실에서나 진실을 호도함에도 불구하고 위낙 뛰어난 조리를 갖추고 있어 논리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비판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하나는 다름 아니라 양명학에 경사했기 때문이다.

따져보자면 진실을 호도하는 유려한 말솜씨란 문제될 게 없다. “군자가 경전을 보익하고 邪說을 물리칠 때 이치가 통하고 말이 시원해야 하거니와 썩는 자신의 道를 분명히 할 뿐이니, 졸렬한 장인을 위해 繩墨을 버리는 일은 일찍이 없고 보면 저들이 입을 대고 대지 않고의 여부는 본래 생각할 것도 못 된다.”³⁸⁾라고 한 대산 자신의 말마따나 용춘의 말솜씨와 논리는 사실 애초 대산의 입장에서 큰 문제로 여겼던 것은 아니고, 보다 직접적인 것은 결국 양명학에 대한 경사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대산은 양명학을 왜 그렇게 비판했을까? 三魚 陸隴其에 대

37)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593. “榕村則不然, 觀其行己規模, 喜方便而貴諧合, 以之談經, 亦用此法. 而問學之賅瞻, 言語之辯給, 足以濟之, 故圓渾滑熟, 未易非刺. 於朱子則服事既久, 嚴不敢違, 而其中則未必篤信; 於王氏則病敗已著, 鄙不肯從, 而其實則未敢辦敵. 於是褻回兩間, 別立門戶, 明明從王氏, 而曰: ‘吾非從王氏也, 章次而已.’ 明明違朱子, 而曰: ‘吾非違朱子也, 文義自如.’ 其心不已勞, 而其辭不已枝歟.”

38)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593. “君子之翼聖經距邪說也, 理達辭沛, 要以明己之道而已, 未嘗爲拙匠而改廢繩墨, 則彼喙之容與不容, 本不足計.”

해 한 대산의 평을 통해 그 생각을 짚어보자.

가) 근세 중국 유자로서는 오직 三魚 陸隴其가 가장 醇正하다. 또 實行을 몸소 행하여 천하에 정주학을 하는 학자들이 翕然이 숭앙하여 혹 성인에 비기기까지 하니, 성리학을 교묘하게 공격하고 이단의 논의를 세우길 즐겨하는 惠棟³⁹⁾과 紀昀이 할지라도 또한 醇儒로 추송하여 감히 드러내놓고 비판한지 못한다.⁴⁰⁾

나) 明 말엽의 顧涇陽과 近世의 李榕村은 尊朱斥王을 내걸었다. 하지만 知本을 格物로 간주한 경우로 보자면 王學의 고질을 그대로 墨守하고 있어서 도저히 깨뜨릴 수 없고, 오직 三魚 陸隴其만이 그의 過失을 힘껏 분변하였다.⁴¹⁾

三魚는 주자의 이학을 존송하고 왕양명의 심학을 배척했던 靑初의 대표적 학자로서 청나라 지성계에서 ‘醇儒第一’ ‘傳道重鎮’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는 학술을 창명하고 인심을 端正하게 하는 것을 평생 자신의 소임으로 삼고, 평생 양명의 심학을 공척했다. 그에 대해 대산은 惠棟(1697-1758)이나 紀昀(1724-1805)과 같은 후배 학자들-더구나 고증학의 대가로 불렸던-도 醇儒로 존송해마지 않았던 사실을 말하고 있다. 대산이 ‘삼어가 가장 순정하다’고 평가하며 순유로 존송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가 양명학을 공파했다는 데 있다. 이는 용춘과 뚜렷이 대비되는 점으로, ‘王學의 고질을 그대로 묵수하고’ 있던 용춘과는 달리 왕학의 문제점을 학문적으로 분명히 지적하여 변론한 삼어를 그야말로 근세 중국 문단의 제일순유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대산은 삼어의 유집을 구해보고 「學術辨」 3篇과 「李子喬湯潛庵」 등의

39) 활자본에는 ‘惠棟’이 없으나, 규장각본을 참고하여 보충해 넣었다.

40)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605. “近世中州儒者, 惟陸三魚隴其, 最爲醇正. 且有踐履實行, 海內爲程朱之學者, 翕然宗仰, 至或疑於聖人, 雖以惠棟紀昀之工訶洛閩, 喜立異論, 亦推爲醇儒, 未敢顯攻.”

41) 金邁淳, 『臺山集』 卷15, 「闕餘散筆 天地第一」, p.565. “明末顧涇陽, 近世李榕村, 名爲尊朱斥王, 而至於知本之爲格物, 則墨守膏肓, 牢不可破, 獨陸三魚隴其, 力辨其失.”

여러 글들에 깊이 공감하였고, 또 큰 감명을 얻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부분 몇 단락을 인용하여 「궐여수필」에 인용해 놓았는데, 소개하자면 이 부분이다.

가) (양명의 설은)예컨대 ‘知本이 곧 知至니, 一本 외에는 달리 학문이란 없다. 강령으로 말해보자면 다만 明德이 있음만을 알면 그뿐 그 위에 新民의 방법은 더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조목으로 말해보자면 다만 誠意 正心 修身만 알면 그뿐 그 위에 齊家 治國 平天下의 道는 더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까닭에 ‘本이 급선무’라고 한다면 옳지만 ‘本만 알면 더 이상 末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⁴²⁾

나) 왕양명의 학술이 흥성한 嘉靖 隆慶 이래로 국정을 휘두르고 수령이 된 이들이 왕양명의 학술에 예외 없이 매몰되었다. 처음엔 의론이 되고 기세를 떨치더니 이어서 정치가 되고 풍속이 되어, 마침내는 예법이 해이해지고 政刑이 문란해져 이단과 사설의 유행이 생겨나고 방종과 경망의 풍조가 형성되었다. 이런 까닭에 명나라 친하는 도적에게 망한 것도 아니고 봉당으로 인해 망한 것도 아니고 학술에 의해 망한 것이다.⁴³⁾

가)는 양명의 학설을 논리적으로 공박한 부분이다. 학문에서 ‘本末’은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으로, 다만 ‘緩急’의 문제만이 있다는 것이 삼어의 논리이다. 양명학의 논리대로 가자면 ‘心’만이 중요할 뿐이다. 心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이는 선가의 頓悟와 성격이 유사해지는데, 이때 객관성은 현저히 약화되고 주관성만 강화되어 올바

42) 金邁淳, 『臺山集』 卷15, 「闕餘散筆 天地第一」, p.565면. “如謂知本, 卽是知之至, 則是一本之外, 更別無學. 以綱領言之, 但當知有明德, 而不必復講新民之方也; 以條目言之, 但當知有誠正修, 而不必復講齊治平之道也, 可乎. 故謂本之當先務則可, 謂知本而不必更求末則不可.”

43)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605. “自王學之興, 嘉隆以來, 秉國勻作民牧者, 無不浸淫於是教. 始也, 爲議論爲聲氣, 繼也, 爲政事爲風俗, 以至禮法弛而政刑紊, 邪僻詭異之行生, 而縱肆輕狂之習成. 是故明之天下, 不亡於寇盜, 不亡於朋黨, 而亡於學術.”

른 학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학문이란 진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인데, 心객의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이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治國平天下와 같은 현실 정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삼어는 ‘왕양명의 경우는 「知本」 2글자를 빌려 자신의 良知說을 펼치려 한 것’이라고 痛駁했던 것이다. 나는 양명학의 흥성에 따라 가)에서 우려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증명된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 嘉靖 隆慶 이래로 왕양명의 학술이 흥성한 결과 ‘예법이 해이해지고 政刑이 문란해져 이단과 사설의 유행이 생겨나는’ 과정을 거쳐 종당에는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명나라 천하는 도적에게 망한 것도 아니고 봉당으로 인해 망한 것도 아니고 학술에 의해 망한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명나라의 멸망이 학술에 의한 것이고, 그 학술이 다른 무엇이 아니고 바로 양명학이라는 삼어의 평가는 자못 신랄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다. 이 견해에 대신이 깊이 공감하고 共鳴한 것으로 볼 때 대신의 생각 역시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결국 대신은 양명학의 흥성이 성현의 본지를 해치고 학문을 어지럽혀 斯道를 멸함은 물론이고, 나가서 국가의 근간을 흔들며 망하게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2. 불교에 대한 비판

이 장은 II장 1절 「현학적 실사구시와 훈고학의 流弊 비판」과 연계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 성리학은 불교 논리에 대응하여 논쟁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념 설정을 명징하게 하고 내적 논리를 심화시켜 나간 측면이 있다. 그런 까닭에 성리학의 개념어 가운데 많은 부분이 유가의 古經에 나오지 않거나, 혹 나오더라도 의미가 달라져 있다. 고증학자들은 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고, 宋學을 부정하고 漢學을 지향하는 이론적 근거를 세웠다.

『阮元集』에 「性命古訓」 1편이 있다. 이는 李翱의 「復性書」를 비판하기 위해 지은 것인데, 『시경』 『서경』 『효경』 및 『춘추』와 『논어』와 『맹자』에 나오는 性命說을 채집하여 단락마다 자신의 견해대로 논설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은나라와 주나라 시대의 사람들이 性命을 말한 것은 대체로 일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어서 따라 행하기가 쉽고, 쑤나라 唐나라 사람들이 성명을 말한 것은 대체로 마음에 있기 때문에 허탄하여 牽強附會하기 쉽다. 유가와 불가가 나누어짐은 여기에 있다.” 하였다. 또 “공자가 안연을 가르친 내용은 오직 극기복례였지 復性은 없었다.” 하였다. 게다가 ‘命’에 관한 맹자의 말씀한 단락과 ‘性之欲’이란 『예기』의 한 구절을 강조하여 ‘欲은 본성 내에 있는 것으로 근절할 수가 없다. 근절하려 하는 것은 불교이다.’라고 하였다.⁴⁴⁾

청대의 대학자 阮元(1764-1849)의 「性命古訓」을 보고 대산은 놀랐다. 그것은 본래 완원이 唐나라 李翱의 저술인 「復性書」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저술임을 논박하려 쓴 글이다. 전부터 「復性書」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누차 攻斥을 당했음은 물론 朱子에 의해 이미 변화되었던 저술이거니와, 완원에게 새삼 문제가 된 것은 ‘復性’ 두 글자였다. 이것은 朱子 이래 성리학의 핵심 개념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은 말인데, 완원이 이에 대해 “공자가 안연을 가르친 내용은 오직 극기복례였지 復性은 없었다.” 하였고, 맹자와 예기의 구절을 인용하여 ‘性的 內에 있는 欲을 근절하려 하는 것은 곧 불교 논리’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이는 사실 전형적인 考證學적 논리인데, 주자학자였던 대산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주자학의 性 논리는 곧 불교의 논리’라는 말은 심상히 보아 넘길 수 있는 발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성리학은 朱子 以來 斯道の 正學임을 천명하며 수많은 여타의 ‘異端’과 대비되는 학문적 주류를 자임해왔

44)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601. “阮集, 有性命古訓一篇, 蓋爲斥李翱復性書而作也. 採集詩書禮孝經春秋論孟言性命之說, 而逐段以己意附論. 總斷之曰: ‘商周人言性命, 多在事, 故實而易於率循; 晉唐人言性命, 多在心, 故虛而易於傳會. 儒釋之分, 在於此’ 又曰: ‘孔子教顏淵, 惟聞復禮, 未聞復性.’ 又力主『孟子』‘口之於味、目之於色、耳之於聲、鼻之於臭、四肢之於安佚、命也.’一段, 及『禮記』‘性之欲’一句, 以爲‘欲在性之內不可絕, 絕欲者佛教也.’”

던 터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일찍이 일본인 太宰純이 지은 『論語訓傳』을 읽어보았다. 仁을 말할 때면 어김없이 安民으로 해석하였고 禮를 말할 때면 어김없이 儀制로 해석하였으며, 朱子集註에서 본심이나 천리로 설명한 訓釋을 힘껏 배척하여 “불교의 공허한 학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렇게 말했다. “集註에서 말한바 ‘私欲淨盡’이란 표현은 바로 선가의 修菩提의 교리이다. 마음에 사욕이 있는 것도 또한 天理이니, 정말로 사욕이 말끔히 사라졌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⁴⁵⁾

太宰純은 일본 고학파의 중심 인물이다. 그의 학문 역시 완원을 비롯한 청대 고증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인용문에서 보듯 朱子 集註의 說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교의 논리라 비판하였다.⁴⁶⁾ 논리 전개가 이쯤 되면 사실 주자학자로서 유학자로서 그냥 있을 수 없는 책임이 있다. 훈고학의 유편을 비판하고 공박하는 것을 떠나, 불교논리와 성리학의 논리를 명확히 분변하고 불교를 단호히 배척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이에 대산은 ‘욕은 본래 性 안에 있는 것으로, 程朱는 본래 성을 부정한 적이 없다.’는 논리로 완원의 논리에 반박하며, ‘欲의 성격을 잘 분별하여 天理이면 따르고 人慾이면 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⁴⁷⁾ 또한 이 논리의 연장선 위에서 ‘성이 선하지 않고 欲을 막게 할 수 없고 성인에 도달할

45) 金邁淳, 『臺山集』 卷17, 「關餘散筆 榕村第三」, p.601. “嘗見日本人太宰純所著 論語訓傳, 凡言仁, 必以安民釋之, 凡言禮, 必以儀制釋之, 力斥集註本心天理等訓, 以爲釋氏空虛之學. 又曰: ‘私欲淨盡, 乃禪家修菩提之教, 心之有私欲, 亦理也. 若果淨盡則非人也.’”

46) 太宰純의 글을 읽은 대산은 매우 놀라 여기에 대해 「題日本人論語訓傳」이란 글을 지어 강하게 비판했고, 이 글을 읽은 동시대의 중국학자 梅曾亮 (1786-1856)이 극찬한 바 있다. 『대산집』 권8에 이 두 편의 글이 실려 있다.

47) 金邁淳, 『臺山集』 卷17, 「關餘散筆 榕村第三」, p.601. “情生於性, 而七情有欲, 則性中無欲, 孰爲此言? 程朱無是也. 簠簋籩豆, 棟宇筦簞, 欲之本於天者, 此固性之所有也; 酒池肉林, 峻宇雕牆, 欲之徇乎人者, 此亦性之所有乎? 聖賢之使人寡欲遏欲者, 欲其審察於天人之分, 性之所有則循之, 性之所無則禁之.”

수 없다면 저들이 말하는바 학문은 무엇인가? 또 머리를 숙이며 성인의 경전에 주석을 다는 것은 또 무슨 마음인가?’ 하며 태재순을 비판하였다.⁴⁸⁾

유학자들은 끊임없이 불교를 비판하고 배척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보았듯이 ‘心性’ 등에 대한 성리학의 논리와 불가의 논리가 유사한 부분이 많아 그 분별이 쉽지 않은 것이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이겠다. 그래서 주자학을 불교라고 주장하는 고증학자의 논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교 논리와 다르다고 분별한 것이다. 유교와 불교의 성쇠에 대한 대산의 시각은 어떠한가? 대산은 유자들이 전통적으로 향용하던 생각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자신의 시대를 ‘유교는 희미해지고 禪學은 흥성하’는 시대로 보았다. 대산의 다음 발언은 흥미를 끈다.

대개 心性이 신체의 근본인 것은 곧 우주 간의 자연스러운 영원불변하는 이치이다. 심성에 대한 학문이 아무리 침체되어도 그에 관한 학설은 멸절되기 어려우니, 유교에 없으면 틀림없이 불교에 있다. 비유하자면 집안에 간직하던 寶器를 주인이 간수하지 못하면 도적이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邪學의 흥성은 정학에 기대어서 시작되고, 허위의 발생은 진리에 가탁해서 말미암는다. 애초에 정학과 진리가 없다면 사학과 허위가 어디에서 발생하겠는가? 正道가 밝지 않으므로 사학이 현혹시킬 수 있고, 眞體가 확립되지 않으므로 허위가 난장칠 수 있는 것이니, 정도가 정말 명쾌하고 진체가 정말 확립되어 있다면 온갖 사학과 별별 허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⁴⁹⁾

48) 金邁淳, 『臺山集』 卷8 「題日本人論語訓傳」, p.431. “性非本善, 欲非可淨, 聖非人所能爲, 則彼所以爲學者何事? 而所以屈首註聖人書者, 又何意也? 詆斥程朱之不足, 上及孟氏, 則可謂變異之甚矣.”

49)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601. “儒教微而禪學興, 蓋心性之爲人身根本, 乃是宇宙間自然常存之理也. 其學雖晦, 其說難絕, 不在於此, 必在於彼. 譬如家有寶器, 主人不守, 則盜賊有之也. 夫邪之興, 由於託正, 偽之作, 由於假眞, 若初無正與眞, 則邪與偽, 何從而生乎? 正道不明, 故邪得以眩之; 眞體不立, 故偽得以亂之. 正道苟明, 眞體苟立, 千邪百偽, 惡得以眩亂之乎? 然則彼所謂識心見性者, 其說雖非, 未可謂無所由. 而使其說猖狂自肆, 得售眩亂, 則亦兩漢諸儒不講心性之過也. 仁義不行而楊墨託焉, 其差也至於無父

불교가 멸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부활하는 것은 그것이 心性을 연구하기 때문이란 것이 대산의 생각이다. 心性은 신체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학설은 인류사가 끝나지 않는 한 영원할 것이라는 말인데, 직관적 견해가 돋보이는 흥미로운 발상이다. 대산의 입장에서는 다만 心性學에 대한 주도권이 邪正이 문제가 된다. 유가에서 심성에 대한 학문이 시들해지면 그 주도권을 불교가 가져간다는 논리이다. 그에 대해 대산은 ‘도둑과 보물’로 비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도둑에게 보물이 있어도 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약간 다른 문제이다. 심성 연구에 대한 주도권이 불교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교의 심성 논리가 邪이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 불교의 논리가 무서운 것은 성리학과 흡사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데 있다. 그것이 이른바 ‘邪學의 흥성은 정학에 기대어서 시작되고, 허위의 발생은 진리에 가탁해서 말미암는다.’는 것이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 사학이 가탁할 여지가 없도록 유교를 분명히 확립하는 것이다. ‘정도가 정말 명쾌하고 진체가 정말 확립되어 있다면 온갖 사학과 별별 허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발언의 의미가 그것이다. 대산이 불교를 배척했던 이유는 바로 이 점에 있다.

IV. 출처 의리와 주자학에 대한 대산의 시각

1. 출처 의리에 대한 대산의 시각

대산은 출처 의리에 대해 유난히 민감했다. 출처 의리가 유학자들에

無君，無父無君可誅也，仁義之道，不可廢也。心性不講而禪釋託焉，其弊也至於空虛寂滅，空虛寂滅可斥也，心性之說，不可絕也。今惡禪釋而諱言心性，何異於惡楊墨而諱言仁義乎？”

게 있어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임은 군말이 필요 없겠지만 대산은 일반적일 경우보다 조금 더하다. 그래서 증조 학자들의 출처 의리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에 대한 평을 남겨놓았다.

三魚는 평생 공맹과 정주의 책을 읽었으니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 볼 때 天民大老의 일을 남에게 양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승정 말년에 나이가 이미 15세가 넘었는데 나라가 망한 뒤에 깊이 숨지도 못한데다, 招聘도 徵召도 아니고 스스로 과거에 응시해 출사하여 흰머리가 되도록 지방 말직을 전전하였다. 이 또한 하는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⁵⁰⁾

앞 장에서 보았듯이 삼어에 대한 대산의 존경은 굉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출처문제에 있어서만은 삼어의 처사가 흠족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成年으로서 시비의 판단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되어서 청나라가 들어섰음에도 避世하기는 커녕 招聘도 徵召도 아니고 스스로 과거에 응시해 출사했던 삼어였는데, 그마저도 지방 말직만을 전전하고 말았다. 시대를 움직이는 고위 관료였다면 중화문명으로 오랑캐를 교화시켰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을 터인데 그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점에 대해 대산은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다. 당대의 정주학자가 그야말로 醇儒로서 흠을 남기고 말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청초의 학자 고정림을 존경하여 「고정림전」을 지은 바 있다. 그가 고정림을 그토록 존경한 이유 가운데 출처 의리가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그 강개함과 절조를 존경하여 “甲申 이후 중국의 문자는 搢紳들의 경우 오로지 阿諛 문자를 추종했고, 재야 역시 엄하게 忌諱하여 비록 일상 대화라 하더라도 오랑캐와 조금만 관련이 있을라 치면 모두가 입을 닫아 입에 담을 것이 아니라 여겼다. 그러나 고정림은 입만 떼면 대담하

50)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606. “三魚一生讀孔孟程朱之書, 自待與人待之者, 宜不欲以天民大老之事, 讓與別人. 而崇禎之末, 年已志學, 國變之後, 不能深藏遠引, 非聘非徵, 應舉覓官, 皓首浮沈於知縣科道之間, 是亦不可以已乎?”

여 조금도 피휘하는 기색이라곤 없었다. 고정림이 時事를 논하여 ‘二帝와 三王이 천하를 영원히 떠나셨으니,⁵¹⁾ 天地가 거의 멸식되겠구나.’⁵²⁾ 한 말은 필세가 하도 강경하여 능연히 범할 수가 없었다.” 하고 찬양하였다. 이어서 고정림의 시편 3편을 소개했다.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李因篤, 朱彝尊, 潘耒 등과 같이 반평생 재야에서 학문에만 몰두하던 학자들 모두 徵召에 응하거나 협박에 못 이겨 출사를 하였는데, 정림은 이때 逸士로서 은거하여 벼슬을 받지 않았다. 벼슬을 주어 선비를 다스리던 청나라의 정책에 정면 항거한 것이다. 정림의 이점을 대산은 크게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처형도 받지 않고 벼슬도 하지 않고 몸과 명예를 모두 온전히 한 자로는 오직 顧亭林 한 분 뿐이다.’하고 극찬했던 것이다.

“성과 命은 공자께서 입에 잘 올리지 않는 말이요, 오늘날 학자들이 항용 하는 말이다. 出處去就와 辭受取與의 분별은 공자와 맹자께서 항용 하시던 말씀이요, 오늘날의 학자들이 하지 않는 말이다. 선비가 염치를 먼저 말하지 않으면 근본이 없는 사람이 되고, 옛 것을 좋아하여 문견이 많지 않으면 공허한 학문이 된다. 근본 없는 사람이 공허한 학문을 하면, 종일 성인의 학문에 종사하여도 갈수록 더욱 멀어진다.” 이 말은 가위 警世의 至論이니 이로부터 말씨가 그렇게 된 것이다.⁵³⁾

51) 제 양공(齊襄公)이 9대(代) 선조의 원수를 갚기 위해 기(紀) 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춘추』에서는 그저 “기후가 영원히 그 나라를 떠났다.[紀侯大去其國]”라고만 하였는데, 멸망시킨 제 양공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춘추』에서는 어진 이를 위해서 피휘를 해 준다.[春秋爲賢者諱]”라 하였고, 또 “양공의 어떤 점을 어질게 여겼는가. 원수를 갚은 것을 말한다.[何賢乎襄公 復讎也]”라고 하였다. 『公羊傳 莊公 4年』 고정림은 이 필법을 인용한 것이다.

52) 『주역』 「繫辭傳 上」의 “易不可見，則乾坤或幾乎息矣.”를 인용한 표현이다.

53) 金邁淳, 『臺山集』 卷17, 「關餘散筆 榕村第三」, p.604. “又曰: ‘性也命也, 夫子之所罕言, 而今之君子之所恒言也; 出處去就, 辭受取與之辨, 孔子孟子之所恒言, 而今之君子之所罕言也. 士不先言恥, 則爲無本之人, 非好古而多聞, 則爲空虛之學. 以無本之人, 而爲空虛之學, 吾見其日從事於聖人而去之彌遠也.’ 斯

고정림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정림은 오늘날 성리학자들이 일상적으로 거론하는 性과 命은 공자께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이고, 공자께서 늘 말씀하시던 出處去就의 문제는 오늘날 학자들에게 관심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공허한 학문으로, 이렇게 가면 점점 성인의 학문에서 멀어진다는 논지이다. 대산은 정림의 이 말에 크게 공감했다. 그리고 ‘警世의 至論’이라고 극찬하였다.

대산이 생각하는 학문은 出處와 辭受에서 의리가 분명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삼어의 경우와 같이 ‘공맹과 정주’의 학문을 하고도 올바른 유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비에게 出處와 辭受란 居敬窮理를 통해 닦아오고 주장해오던 자신의 학문이 현실적으로 가름 나는 기점이기 때문이다.

출처의 의리에 대산이 이렇게 예민하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를 유추해보면 淸陰 金尙憲(1570-1652)의 후예란 점에서 이해해볼 수 있겠다. 청음은 바로 조선 의리정신의 표상으로, 이후 안동 김문의 정신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물론이다. 또 하나는 伯從兄 金達淳(1760-1806)과 관련해서 이해해볼 수 있겠다. 김달순은 대산의 큰아버지 金履鉉의 아들로 대산보다 16세가 많은데, 우의정까지 올랐다가 政爭의 소용돌이 속에서 47세에 賜死된 인물이다. 그는 대산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로, 평소 대산이 그에게 벼슬에서 물러나길 간곡히 권했다. 그의 죽음에 대산은 충격을 받아 정계를 떠나 漢湖로 물러나 19년을 은거했다. 그야말로 대산의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데, 대산이 출처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하는 데에는 이 사건의 영향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2. ‘道文合一’의 관점에서의 주자학 계승

대산이 주자의 학문을 호호하고 『주자대전』에 잠심하면서 經學 일방

言也, 可謂警世至論, 而此自是未弊然也.”

면으로 경사되었던 것은 아니다. 대신은 주자가 이룩한 학문적 성취 외에도 『주자대전』을 하나의 이상적인 문학적 전범으로 보기도 했다. 문장의 관점으로 주자에 접근했다는 말이다. 道와 文에 대한 논의는 유가의 오래된 쟁점 가운데 하나로, 道學者와 문장가 사이에 늘 팽팽한 논의가 있었고 문장가 내부에서도 다양한 층위의 견해가 시대마다 다르게 존재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도학자들은 ‘文은 道와 다르다고 여겨, 道를 배우면서 文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거나 또 자신이 성리설에 뛰어나다는 것만 믿고 내로라 하지만 사실 ‘더 이상 주변의 다른 서적을 널리 읽지 않아 진부한 말을 주워 모으기만 할 뿐 제 스스로는 한 마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른다.’고 하였다. 師門의 설을 비판 없이 답습하여 앵무새처럼 이야기만 할 뿐 자신의 견해는 하나도 없는 속류 도학자에 대한 楊升菴⁵⁴⁾의 비판이다. 승암은 이런 속류들에 대해 ‘記誦者에게는 비루하다 코웃음을 사고 詞華者에게는 졸렬하다 비웃음을 산다.’고 비꼬며, ‘이것이 嘉定 연간 이후로 만연한 朱門 末學의 폐단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은 이조 후기 주자 학계에 거의 그대로 부합하는 상황으로, 공소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대신으로 보자면 자신을 비롯해 주자학자 내부를 향한 뼈아픈 반성을 요하는 말이다.

楊升庵이 말하였다. “性理의 精微함을 분석함은 日月의 精明함이고, 邪說을 끝까지 연구함은 귀신처럼 꼼꼼하고 벼락처럼 강렬하다. 충의를 감격시키고 『離騷』를 발명시킴은 苦雨淒風의 變態이고, 人事에 두루 맞고 翰墨에 노닐은

54) 楊慎(1488-1559) : 자는 用修, 호는 升庵, 시호는 文憲이며, 四川省 新都 사람이다. 명나라 때 경학가로, 1511년 殿試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翰林院 修撰에 제수 되었고, 經筵講官으로 재직 중 황제의 노여움을 받아 귀양가서 40년만에 죽었다. 李東陽을 사사하였고, 程·朱의 理學과 陸王의 心學을 반대하였으며, 鄭玄의 설도 공박하였다. 그는 經書百家·天文地理·典章制度 등을 두루 연구하였고, 사실을 고증하는 데 치중하여 考據學風을 열었다. 저술로 『檀弓叢訓』·『奇字韻』·『石鼓文音釋』·『六書索隱』·『經子難字』·『水經注稗目』 등이 있다.

行雲流水의 자연스러움이다. 주자의 문장이 이런 문장이로다.”⁵⁵⁾

楊升菴의 명대의 학자로 고거에 밝고 시에 뛰어나 우리나라 문인들의 문집에 적지 않게 인용되었던 인물이다. 도학보다 기실 문장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 인물이 주자의 학문과 문장에 대해 정곡을 찔러 표현했다는 것에 대산은 큰 느낌을 받았던 모양이다. ‘性理의 精微함을 분석’하고 ‘邪說을 끝까지 연구함’은 주자의 학문에 대한 평이거니와 ‘충의를 감격시키고 『離騷』를 발명시킴은 苦雨淒風의 變態이고, 人事에 두루 맞고 翰墨에 노닐은 行雲流水의 자연스러움이다.’ 라고 한 부분은 주자의 문장에 대한 평인데, 쉽지 않은 극찬이다. 대산은 주자의 문장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와 학계 풍조에 대한 반성에 자극받아 이렇게 말한다.

양승암의 학문이 비록 道에 있어서는 순수하지 않지만 문장의 한 방면에는 안목이 또한 절로 뛰어났다. 그래서 진면목을 간파하고 통쾌하게 분변하기가 이와 같다. 조선에서 주자학을 하는 이들은 의당 자리말에 적어 두어 정문일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⁵⁶⁾

조선의 상황과 너무 부합한 지적에 ‘조선에서 주자학을 하는 이들은 의당 자리말에 적어 두어 정문일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하였다. 道文에 대한 대산의 기본 입장은 ‘경술과 문장의 일치’이거니와 이를 위해 주자학에 침잠하였다. 하여 「주자대전차의문목표보서」에서 ‘주자의 글에서 귀한 것은 道이지 문장이 아니다. 그러나 문장에 통하지 않고 도에 통할 수 있는 자는 실로 없다.’라고 서술하였는데, 文과 道에 대한 이런 그의 사고가 양승암 글의 인용과 그 비평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55)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608. “楊升庵曰: ‘剖析性理之精微則日精月明; 窮詰邪說則神搜霆擊. 感激忠義. 發明離騷. 則苦雨淒風之變態; 泛應人事, 遊戲翰墨, 則行雲流水之自然. 其紫陽之文乎!’”

56) 金邁淳, 『臺山集』 卷17, 「闕餘散筆 榕村第三」, p.608. “升庵之學, 雖於道未純, 而文章一路, 眼目亦自超詣. 故看得真的, 辨得痛快, 如此. 東土之爲朱學者, 宜寫置坐側, 以當頂門一鍼.”

우리 유가의 도가 문장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먼 길을 가면서 수레와 말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네. 주객과 경중의 구별은 진실로 없을 수 없거니와 만약 문장을 말단의 기예로만 여겨 힘쓰지 않는다면 도를 강하고 경전을 설명하는 글이 틀림없이 모두 지루하고 모호해져서 말이 뜻을 전달하지 못할 것이고 경전의 뜻이 밝혀지지 않아 도술이 어둠에 잠기게 될 것이네. 대저 이러한 폐단은 우리나라가 더욱 심하네. 근세에 육룡기나 이광지 같은 이는 비록 일찍이 작가의 글을 쓰는 데 뜻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글은 모두가 찬연히 문장을 이루어 읽는 이를 싫증나게 하지 않지. 까닭에 그들의 강설이 모두 명백하고 투철하여 뜻이 귀결되는 곳을 분명히 알 수 있지.⁵⁷⁾

인용문은 대산이 홍길주(1786-1841)를 만나 해 준 말이다. 여기에는 대산의 경술과 문장에 관한 관점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학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경전만 연구하고 문장을 하지 않으면 그 글이 모호하고 진부해서 논리를 펴낼 수 없고 見得處를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것은 먼 길을 갈 때 수레나 말과 같은 것으로 경학의 연구와 토론을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학문적 글쓰기를 위해서도 문장에 대한 강구는 필수적이란 의미이다. ‘경술과 문장의 일치’를 주장한 대산의 의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언급이다.

V. 결론

대산은 독실한 주자학자임에도 양명학이나 고증학에 대해 단순히 배척한 것이 아니라 유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성과 역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주자학에 대해서도 무조건적 옹호가 아니라 그 말폐를 정확한 인식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성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는 醇儒를 지향했으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학문과 문장 양 방면에 쉬임없는

57) 洪吉周, 『沈瀆丙函』, 『睡餘瀾筆續』 134則.

노력을 했다. 고증학에 대한 비판이나 양명학 및 불교에 대한 비판 역시 그런 노력의 하나이고, 다산이 편지를 보내와 『매씨서평』에 대해 이것 저것 질문을 해왔을 때 성실하게 답변한 것 역시 이러한 궤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대산은 中·日 학자들의 비평을 통해 대산의 학문적 입장을 정리해본다면 이렇다. 첫째 의미 없는 쇄쇄한 고증에 매몰되어 개인의 현학적 취미를 자랑하는 고증학에 매우 비판적이었으며, 實事求是의 口號를 앞세워 성리학이 일군 학문적 성과 일체를 부정하는 당대 학문 풍조를 우려하였다. 『상서』 논쟁에서 僞古文을 인정하지만 그 속에 내재된 주요 정신과, 그를 바탕으로 쌓아온 정신적 문화적 업적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둘째 양명학의 논리는 心에 무게 중심을 두어 현실 정치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선가의 돈오와 흡사한 논리는 학문에서 객관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결국 학술과 국가의 패망을 가져올 것이라 보았다.

셋째 불교 역시 주자의 논리가 불교의 논리라고 공격하는 고증학자들의 주장에 우려를 표명하며, 불교와 유교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넷째 出處의 義理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했으며, 道文觀은 道文合一의 논리 위에 문장적 측면에서 주자의 문장을 중시하여 도입하려는 견해를 제출하였다.

炯菴, 薑山, 秋史, 茶山 등 동시대 학자들과 대비해 볼 때 주자학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臺山の 학문에 대한 시각과 비판 및 그 근거와 논리를 이제까지 살펴보았다. 대산과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며 ‘淵臺文章’으로 병칭되었던 淵泉 洪奭周 역시 고증학과 양명학 등에 대해 짧은 비평을 남겼는데, 비판의 논리를 자세히 남기지 않아 다소 아쉬웠다. 앞서 살펴본 臺山の 발언을 통해 연천의 시각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도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老洲 吳熙常, 梅山 洪直弼 등

당대 주자학자들의 학문관 이해에도 일정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參考 文獻>

- 金邁淳, 『臺山集』, 『韓國文集叢刊』 294집, 한국고전번역원.
——, 『펼쳐산필』, 성대본.
金正喜, 국역 『阮堂全集』, 한국고전번역원, 1996.
張 維, 『谿谷集 谿谷先生漫筆』, 『韓國文集叢刊』 92집, 한국고전번역원.
丁若鏞, 『茶山詩文集』, 『韓國文集叢刊』 281집, 한국고전번역원.
정인보, 『담원국학산고』, 문교사, 1955.
洪吉周, 『沈瀞丙函』, 연세대 국학자료실.
홍길주, 박무영 외 옮김, 『홍길주 문집』 1~7, 태학사, 2006.
洪奭周, 『학강산필』, 국립중앙도서관.
- 금동현, 『조선후기 문학기론 연구』, 보고사, 2002.
김문식, 『조선후기경학사상연구』, 일조각, 1996.
실시학사경학연구회, 『茶山과 薑山, 淵泉의 經學論爭』, 한길사, 2000.
함영대, 「다산과의 교유정신에 나타난 대산의 학술정신」, 『문헌과 해석』 45, 2008.
山内弘一, 「金邁淳의 學問觀」 1994,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武田幸男 編, 山川出版社, 1997.

Abstract

*Study on academic position Deasan based on criticism on scholars
of the Ming · Ching dynasty and Japan / Lee Gyu Pil**

Deasan Kim mea-sun red books extensively covering all sort of books of the day, through it, he made a minute diagnosis of academic world of Chosun.

Although he was moralist and confucianist, he researched and took study more flexibly, in this process he remained 『Kwoulyeosanpil』 describing his thinking freely six volumes and three books.

Kim kwi-sun(1793-1869), Deasan's cousin, evaluated deasan's this excellent work (『Kwoulyeosanpil』) ‘These several tens of chapters are the essential of 『Mummokpyobo』 『Yugo』’ - Frankly speaking,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is remarks cover the whole volume of 『Kwoulyeosanpil』. There are criticisms on scholars more than ten scholars of the Ming · Ching dynasty including 顧炎武, 陸隴其, 阮元 Japanese scholar 太宰純.

All of them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academic world of the Ming · Ching Dynasty and Japan, Deasan remained short criticism, it was impression criticism, almost he pointed out their academic quality of them very sharply and criticize logically.

This thesis researched point of view and thought of later Chosun's confucian scholars on the bibliographical study, Buddhism the philosophy of Wang Yang-ming, through the criticism of Deasan on the scholars of the Mign · Ching Dynasty and Japan.

* Sungkyunkwan University / gdfeel@hanmail.net

【Key words】 Kwoulyoesanpil, Criticism on The Ming · Ching Dynasty and Japan, Bibliographical study, Buddhism, the philosophy of Wang Yang-ming

투고일 : 11월 9일, 심사일 : 11월 19일, 게재확정일 : 12월 5일